

제 10 회 전국연극제 희곡상 수상

자갈치

이 현대

희곡집

해 성

자갈치

지은이 · 이현대
펴낸이 · 김성배
펴낸곳 · 도서출판 해성

1994년 3월 1일 인쇄
1994년 3월 10일 발행

Ⓢ 600-013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9번지 성동빌딩 3층
전화 · (051) 465-1329

465-0485

441-0485

팩스 · (051) 465-0485

등록 · 1989. 4. 6 제 카 1-117호

값 5000원

© 이현대 1994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는 생략합니다.

작가의 말

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천진난만한 소년시절을 부산 영도 바닷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자맥질도 하고 온통 바다를 안고 성장했다.

그래선지 언제부터인가 바다 속을 뒹구는 어둠이 좋아졌다. 조그만 무대에 조명빛이 투사하듯 온갖 빛을 살라먹는 밤이 좋았다. 캄캄한 바다 밑처럼 신비와 공포가 혼용하는 연극 무대가 나는 좋았다.

바다와 무대를 서성거리다가 벌써 오십 나이에 다가선 지금, 늦깎이로 첫 회극집을 발간한다는 두려움과 환희는 무대 위에 수 놓은 밤바다다. 물기둥처럼 수직으로 사그러 들었다가 일어서는 바다꽃 잔치다.

어느덧 무대와 함께 살아온 지 25년. 그것은 실로 미명의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고맙게도 세 가지나 된다.

극단 「현장」의 불박이로 한번도 다른 단체를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것과, 문제인 나를 선생님이니, 형님이라고 부르는 연극 후배들이 많다는 것이고, 밤만 되면 부지런히 돌아다닌 덕분인지 배우와 연출에다 이젠 드디어 회극집마저 내게 되었다는 엄청난 변화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백구의 향연을 만끽하기 위해 물밑듯이 넘쳐나는 야구장의 관중처럼, 한 회 공연에 삼만 명이 넘는 관객들—그런 큰 연극을 위한 그런 회극을 한 번 써야겠다. 그 길만이 극단 「현장」이, 나아가서는 우리 연극이 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끝으로 오랫동안 지켜주신 부산연극계 선·후배님들과 배정고등학교 동료 교사님들 그리고 정답게 한술밥을 먹고 있는 단원들과 대표 김영주 아우. 집필을 위해 여관 방에서 함께 뒹굴었던 홍성모 아우와 최계영 군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천미 예수의 성호를 긋는다.

1993. 12. 이 현 대

자갈치

차 례

작가의 말 · 11

자갈치 · 17, 1992

하늘로 간 고래 · 71, 1990

달구소리 · 123, 1981

건습 아이들 · 187, 1989

절망의 빛깔은 아름답다 · 231

다들 신화 (1994)